

2011 Spring

Vol. 68

# 희망미소

[www.kclf.org](http://www.kclf.org)

창간호

1992. 2



백혈병후원회

## 사랑이 있는 푸른우리마을



희아는 두달 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이야기로는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보고싶은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다”고 해요.  
병원에 다니며 입원해서 주사맞고 하는 것이  
싫지만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엄마, 아빠와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 참고  
기도할래요. “하나님, 뛰어놀고 싶어요……”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  
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절망을 통과한 후 '해피엔딩' 을 바라며



박주만  
(주)이베이옥션 대표이사

6년 전 겨울, 인사팀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여직원이 딸을 출산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소식을 접하고 직원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모금운동도 벌이고, 저도 소아암병동에 입원해 있던 아이를 문병했습니다. 여리고 작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항암제를 맞고 있는 모습에 가슴 아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소아암은 우리 누구의 아이에게나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암환자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소아암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병 요인도 명확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힘든 치료과정을 거쳐야 해 정신적 고통도 큼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치료 종결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치료를 마쳐도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가 남거나, 민간건강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아 경제적 부담도 큼니다.

소아암은 단순히 치료차원이 아닌, 치료 이후에도 소아암 어린이는 물론 형제, 자매, 가족들에 대해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두루 제공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냄으로써만, 온전한 극복이 가능합니다. 2천만 명에 달하는 옥션 사이트 회원들이 옥선의 회원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쇼핑' 을 통해 생활 속의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한편, 소아암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소아암은 절망의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해피엔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직원의 아이는 1년 반 동안의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후유증이 다소 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의 간병으로 힘들어했던 그 여직원은 올해 입사 10년차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자신의 투병 경험을 발판 삼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병마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찾아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승현이 파이팅! 우리 가족 파이팅!



노란 좌욕통 두 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왔으니 장기 입원을 두 번 한 셈입니다. 백혈병이 재발한 후 아들 승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찾습니다. ‘딱히 설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새벽잠을 떨치며 좌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승현이는 평상시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좌욕을 시작합니다. “아빠! 여행 취소해야겠지?” 하며 가장 평안한 표정으로 대답을 기다립니다. 얼떨결에 ‘그래야겠지.’ 라고 말하려다가 급하게 입을 봉합니다. 승현이는 질실하게 원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반대로 말하거나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을 노려보는 승현이의 눈매가 여간 매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짧지만 행복한 영종도 나들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출발할 때는 빗줄기가 가늘어졌고, 지방도를 지나 고속도로에 들어설 즈음에는 승현이의 눈매에 겁을 먹었는지, 먹구름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은 모두가 살이 올라 얼굴이 둥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항암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이 독한 약성분을 견뎌내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식육증진 성분을 첨가한 약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승현이는 성인인 저보다 더 많은 음식량을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배고픈 승현이를 위해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승현이의 환호가 식당을 울립니다. 자기가 원했던 바닷가재는 아니지만 여러 해산물이 앞에 놓여있고, 더 맛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는 듯이 요리사(승현이 상황을 사전에 설명드림)가 옆에서 대거했기 때문입니다. 요리사는 허겁지겁 바쁘게 손을 움직입니다. 식사 후 뒤뚱거리며 앞서가던 승현이는 “실컷 먹었으니 소하나 시켜볼까?” 하면서 운동을 하겠답니다.

우리는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해수욕장.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지만, 우리 승현이는 그저 모래사장을 산책할 뿐이었습니다. 승현이가 슬라이드에 묻은 모래를 털고 있는데, “오빠, 선물이야.” 하며, 여동생 가은이가 조잡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조개 팔찌를 내밀었고 승현이는 팔찌인 줄 알면서도 굳이 발목에 찹니다. 월미도 행 배. 배 주위를 선회하는 갈매기를 유혹하는 손 사이에 승현이 손은 없습니다. 햇볕을 피해야 하고, 혹여 갈매기에게 쏘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제 만류 때문입니다. 승현이는 시무룩하게 벽에 기대 애꿎은 과자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응?’ 재빨리 과자를 다시 던지는 승현이. 녀석이 갑자기 기합을 넣습니다. 배 밖으로 날아가는 과자를 낚아채 가는 갈매기들이 승현이를 즐겁게 해줍니다.

처음에 2박3일이었던 이번 여행을 승현이의 컨디션 난조로 할 수 없이 단축해야 했지만 그런대로 성공적인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밖에서 편하게 웃으면서 식사했던 몇 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며 우리 가족에게 외쳐봅니다. 늘 몸 고생, 마음 고생인 우리 아내와 또 오빠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걱정하는 동생 가은이, 그리고 늘 명랑하고 생각이 깊은 우리 아들 승현이 파이팅! 우리 가족 파이팅!

**\* 승현이는 2008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입니다. \***

승현이 가족은 ‘MBC어린이에게세생명을’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된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을 통해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7대 바우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이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두가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 1~2012. 1. 31
- 서비스 대상 : 만 2~6세 이하 아동(2005. 1. 1~2009. 12. 31 출생)
- 서비스 내용 : 1:1 독서지도 등(주 1회 독서도우미 방문)
- 바우처 지원액(월)

대 상	바우처 지원액(월)	지원기간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1인당 월 27,000원	10개월 (재판정 없음)
그 외 아동	1인당 월 20,000원	

#### □ 서비스 대상자

- 선정기준 : 만 2~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함.

#### □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 1~2012. 1. 31
  - 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 비장애 문제행동아동
  - 서비스 내용 :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 물리치료, 작업치료 제외)
  - 바우처 지원액(월) : 128,000원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6,000원, 일반 32,0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12개월(재판정 가능)
  
- 서비스 대상자
  - 선정기준 : 만 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함
  
-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80천원	39,380	27,476	39,480
		(41,959)	(29,276)	(42,066)
2인	2,492천원	70,486	77,703	70,758
		(75,103)	(82,793)	(75,393)
3인	3,646천원	103,954	125,640	105,392
		(110,763)	(133,869)	(112,295)
4인	4,155천원	118,625	143,043	120,493
		(126,395)	(152,412)	(128,385)
5인	4,593천원	130,351	156,410	132,406
		(138,889)	(166,655)	(141,079)

※ 6인 이상 : 1인 추가시마다 소득 438천원씩 증가  
 괄호( )는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한 금액임.

☞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시는 병 안걸리는 사람, 아주 아주 착한 사람이 될거예요.



### 조해운

1998년 7월 21일생  
2002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2005년 치료 종결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



“해운아!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나?”  
“지금 아이들처럼 축구하고 있어서, 이따가 해도 될까요?”

“이따가? 그 때는 내가 시간이 안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합시다.”

수화기 너머 경상도 사나이의 능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학교 운동장의 친구들과의 축구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8:5로 팀을 승리로 이끈 주역, 이 썩썩한 14살 청소년에게서 소아암 치료를 받는 5살 꼬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해운이 이야기

#### 치료 받던 그 때 기억이요?

다 기억하죠. 병원에서 아팠던 골수 검사. 검사 받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검사가 끝날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검사가 끝나면 아파서 온 몸에 힘이 짝 빠지고, 엄마한테 기대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고는 간신히 기운을 내 쉼터로 갔지요. 쉼터에서 날마다 약 먹던 일, 맛있는 걸 해내라고 해서 기어코 음식 먹던 일 기억나죠.

#### 힘들었던 일이요?

김치 못먹는 거, 남들 먹는 아이스크림 못 먹고 우유 얼려 먹으며 속상해 했던 거, 친구들 가는 PC방에 가지 못했던 거, 수영장 가지 못했던 거, 아이들이 나한테 전염된다고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은 거, 그런 게 다 힘들고 속상했죠.

#### 하지만 즐거움도 있었어요.

병원을 계속 가다가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다니는 횡수가 줄어드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치료 끝나자마자 학교에 갔는데, 처음에는 급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2학기가 되면서 급식을 먹게 됐는데, 이제 나도 다른 아이들과 같구나 생각하니 막 뿌듯하고 그랬어요.

**학교요? 유치원도 다녔어요.**

학교 다니기 전에 유치원도 다녔어요. 유치원 때는 치료 받던 때라서 머리 뺏빳 껏고 그렇게 다녔는데, 애들이 놀리지는 않았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떨어져 놀기도 했지만(감염의 우려 때문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알고 그러잖아요.

**소아암 치료가 지금 저에게**

도움이 된 면이 있어요. 저는 건강에 많이 신경써요. 남들은 상처 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반창고, 연고 이런 거 챙겨 다니면서 상처가 나면 응급처치를 잘 해요. 병원가기도 좋아하고 남들 무서워하는 주사 이런 거 하나도 겁이 안나요. 옛날에는 더한 것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건강에 더 주의해요.

**저는 지금**

즐겁게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못읽은 책 많이 읽고, 예습복습 잘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은 2시간만 놀려구요. 의젓해지고, 동생도 잘 챙겨 주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을 거예요. 이젠 모두 엄마가 저에게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꿈이요?**

저는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남에게 나눠주고 같이 먹는게 너무 좋아요. 앞으로 건강식을 만드는 한식 조리사가 되게 꿈이에요. 그리고 다니는 병 안걸리는 사람, 아주 아주 착한 사람이 될거예요. 저는 TV에 불우한 아이들이 나오면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 아빠, 동생, 제 핸드폰으로 모두 결제해서 후원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더 착한 사람이 될거예요.

**그리고 소아암 치료를 받았던 한 사람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우선 보호자 분께!

김치 먹고 싶는데 못 먹는 아이 앞에서 김장하고 그러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와 만나는 모든 분께!

또 우리가 이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닌데, 치료하면 낫는 병인데,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아주 똑같이, 똑같이 대해 주세요. 아이들 벌 받을 때, 저도 같이 벌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아!

낫는 병이니깐 조금만 참고 힘내! 치료받으면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치료받았으면 좋겠어!

**해운이 어머니 이야기**

지방에서 서울까지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열나고, 수치 떨어지고 이럴 때는 저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쉼터 생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 아이만 아픈 게 아니니까, 서로서로 참고, 배려하는 중에 아이의 성격도 원만해졌어요. 학교생활도 그래서 잘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서로 같은 처지이니까 위로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고... 지금 생각하면 가족보다 더 마음 의지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이예요.

치료받으면서 둘째 아이는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어요. 해운이 치료가 모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함께 기르는데, 둘째 아이는 그동안 부족한 엄마 손길 때문인지, 무엇이든지 오빠랑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똑같이 해줬어요. 해달라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했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모두 야무지고 목소리 난다고 해요. 아이가 잘 커줘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치료받을 때, 부모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부모들을 위한 가족상담 이런 게 있으며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속으로만 힘들어하지 말고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엄마들! 치료 중에 쉽지 않았지만,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틈틈이 휴식을 가지세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게 아니니까요! 모든 보호자들 아자! 아자! 아자! 힘내세요!



내가 신경쓰지 못한 사이에  
꼬카 머리가 많이 자랐다.  
오랜만에 미용실 놀이!

글·그림 소복이.  
sobogi.net





## 부모와 십대사이

출판사 : 양철북  
 저 : 하임 G. 기너트(Haim G. Ginott) / 역 : 신홍민



### » 소개의 글

아이들의 사춘기는 부모들에게 힘든 시기이다.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던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춘기 아이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반항기 가득한 십대 아이 앞에서 부모들은 당황한 나머지 잇달아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이에 대응한다. 우선 부모들은 완강하게 나온다. 이것이 실패하면 작전을 바꿔 친절하게 대한다. 그래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조목조목 이치를 따져들려고 한다. 부드럽게 설득하는 데도 쇠귀에 경 읽기가 되면, 부모들은 비웃으며 꾸중하는 방법에 호소한다. 그래도 안 되면, 부모들은 아이를 험박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부모들의 노력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한다. 원치 않는 배려와 충고를 받으면 십대 아이들은 골을 낸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다 자랐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일을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듯이 행동하려고 한다. 십대의 부모들은 오히려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 책은 부모와 십대가 공존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십대와 함께 서로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 부모들이 '고통스런 관용'을 발휘할 수 지혜를 현실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알려주고 있다.

### » 책의 내용

십대들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면서도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부모라는 은행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 주어도, 대출을 받은 십대들은 이자에 대해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십대들은 도움을 주면 간섭한다고, 관심을 보이면 어른에 취급한다고, 조언을 하면 지시한다고 생각한다. 사춘기는 혼란과 격동, 압박감과 동요의 시기이다. 사춘기는 치유 가능한 광기의 시기이다. 사춘기의 목적은 개성을 자유롭게 하는데 있다. 아이들은 사춘기 때 개성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 그들은 부모의 말에 거역하며 반항한다. 부모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울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십대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도움은 필요하다. 도움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세심해야 한다.

### 도움을 줄 때 지켜야 할 기준

- 1) 십대의 들뜬 기분과 불만을 받아들이자
- 2) 지나치게 이해심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 3) 받아들임과 찬성의 차이
- 4) 십대아이의 언어와 행동을 모방하지 말자
- 5) 가시를 세우지 말자
- 6)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자
- 7) 십대아이들을 얹매려고 하지 말자
- 8) 사실을 수정하려고 서둘지 말자
- 9)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자
- 10) 케케묵은 말이나 설교를 하지 말자
- 11) 길게 이야기 하지 말자
- 12) 십대아이가 듣는 자리에서 꼬리표를 달지 말자
- 13) 아이들의 심리를 역이용하지 말자
- 14)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를 보내지 말자
- 15) 앞일을 예단하지 말자

## 행복을 자랑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서울 한사랑의집에서 공작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이들을 보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자랑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글에 적을 수 있는 그 어떤 말 보다 아이들은 몇 만 배, 아니 몇 천 만 배 더 씩씩하고 기특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너무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고 미리 말씀 드립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예쁜 추억들 중 몇 가지를 힘겹게 손에 꼽아 추려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오후입니다. 그래서 종종 오전까지도 아파서 평평 울었다는 아이가 놀랍도록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오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아픔이 가셔서가 아니라, 아픔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금세 밝아집니다. 허리통증으로 오전 내내 울었다는 예쁜 꼬마가 아직 곧게 펴지도 못하는 허리로 뒹뒹뒹 걸어와서 오후 내내 웃어주기도 하고, 아침부터 계속된 치료로 쉬지도 못한 아이가 헉헉 거리며 달려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선생님~!”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숨이 찬 아이의 고개가 제 어깨에 기대 쉬는 일은 있어도, 아이의 밝은 얼굴이 흐려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신의 병마와 싸우는 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졸처럼 공작수업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카네이션을 만든다거나 목걸이를 만드는 등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만드는 날에는 꼭 나타나 열심히 만들기를 하는 아이도 있고, “선생님 나중에 이거 치우실 때 힘들면 어떡해요?”라며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서도 거대한 도미노를 완성하려는 동생을 위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헌신적으로 나무 블럭을 세워주는 아이도 있고, 음식을 해야 하기에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친구들에게 과자를 챙겨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 정말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삶의 자세는 제게 매년 교훈을 줍니다. 하루는 머리카락이 길지 않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머리띠 만들 재료를 브로찌 만들 재료로 변형해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건 머리띠 만들면 예쁘겠다며 다음에 만들자고 해서 몹시 당황했었습니다. “머, 머리띠 해도 돼?” 하며 어색하게 물으니 한 아이는 “내년에 하면 되죠.” 하며 웃고, 또 한 아이는 “지금도 그냥 하면 되요.” 하며 웃습니다. 예쁜 하트 주머니를 만들던 날도 몹시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트 주머니를 가슴에 대보면서 “이거, 히크만 주머니 하면 되겠다.” 하고 농담을 하는데 저만 웃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작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욕심들(외모 욕심과 같은 것)을 이겨냅니다. 그런 작은 욕심들까지 붙잡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나 사랑 받는 존재인지, 소중한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매일 되새겨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매주 제게 과분한 양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씩씩한 웃음, 따뜻한 마음, 깊은 생각, 그리고 놀랍도록 훌륭한 만들기 작품의 감동까지. 너무나 고마운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한없이 작은 것뿐이라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 김성훈 자원봉사자는 2010년 6월부터 서울 한사랑의집 공작수업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20년 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속으로 Go! Go!

1991년 '백혈병어린이후원회'로 시작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2011년 올해, 20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재단의 전신인 '백혈병어린이후원회'가 무슨 목적을 갖고 설립되게 되었을까요? 20년 전 재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0년 전 그때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요!

## 소식지 '창간호'에는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1991년 11월 21일,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1. 11. 21 첫모임을 갖고 백혈병 어린이들의 완전한 치료와 건강을 위한 자립을 위하여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1. 백혈병 어린이 부모모임 결성  
백혈병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아이들을 간호하면서 얻게 된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며 또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간호를 위해 부모모임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중략- 부모교육을 통하여 그릇된 지식과 정보로 아이들의 치료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2. 회보발행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백혈병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회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이러한 편견을 바로잡고 백혈병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이끌어 줍니다.

3.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 개최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하여 부담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여름캠프를 개최하여 위축되지 않고 씩씩하고 밝게 커나갈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코저 합니다.

4. 헌혈운동  
백혈병 어린이를 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서로의 건강할 피를 나눔으로 인하여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운동을 전개코저 합니다.

5. 기 타  
위에 예시한 사업뿐 아니라 백혈병 어린이들의 완전한 치료를 위한 헌혈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험 사용일수를 365일로 연장)의 개선 및 의료행정의 문 제점을 개선하는 운동, 아이들에게 격려의 카드 보내기 운동, 아이들이 소망하는 소원들 여주기 운동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1회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모임에서 의료진의 말씀! 제1회의 글이 선명하네요!



▲ 여직원회의 후원금 전달 모습. 당시 여직원회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 헌혈의 든든한 동반자는 그 때도 지금도 군인 아저씨입니다.



▲ 가족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모습! 함께 뒀굴거리는 아이들, 지금쯤 20대 후반? 30대? 어른으로 자라 있겠네요! 어디 계세요? 손들어 주세요~!



▲ 지금은 두산베이스! 20년 전에는 OB베이스! 마스크를 쓴 꼬마 선수들의 야구 글러브 낀 모습이 앙증맞습니다.



▲ 당시 최고의 인기스타 개그맨 이영자씨, 방송인 김승현씨가 사회를 즐겁게 봐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린이 열근 나오세요!' 들리시죠?

## 한사랑의집에서는

www.kclcf.org

###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 소아암 치료종결을 축하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소아암 치료를 종결한 어린이와 가족을 축하하고, 치료받는 동안 도움을 준 많은 분께 고마움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가 부산 롯데시네마 프레스티지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치료종결을 환호하고, 부모들은 그동안의 수고와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날의 감동이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우리, 우리 설날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촬영을 기다리는 소아암 어린이의 눈망울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맛있는 떡을 먹고, 한껏 멋을 내어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 가득한 새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 본 프로그램은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 추웠던 겨울 그리고 행복하게 맞이하는 봄

올 겨울 유난히 춥고,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눈 쓸기, 뽕뽕 언 2층 계단 오르내리기 모두 염려되었지만, 이번 겨울 무엇보다 염려되었던 건, 출산



을 앞두고 한사랑의집에 머물고 있던 베트남 출신 어머니였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꼼짝도 못하고, 감기로 고생하셨던 어머니는 아픈 아이 돌보라, 자신의 몸 추스르랴 힘든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은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2011 1st 생월잔치



경험이 부모님의 마음을 담은 후원으로 2011년 따뜻한 첫 생월잔치를 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와 만들기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수도도 펴고... 치료받는 일은 잠시 잊고, 치료 전 어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상의 감사함을 잊지만, 치료받고 있는 가족들은 늘 일상의 감사함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 마사지 받으러 오세요!



아이의 간병으로 누적된 피로로 칙칙해진 피부, 감염될까 염려되어 쓸고, 닦고, 소독하는 사이 어느새 거칠어진 손, 계속되는 긴장 탓에 굳어버린 어깨...



www.kclcf.org

소아암 어린이 어머니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돌볼 틈 없는 우리 어머니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술사 5분이 서울 한사랑의집에 왔습니다. 바로 코코인터내셔널과 함께 온 마사지 자원봉사자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손이 닿을 때 마다 매끈해지는 피부, 마법처럼 풀리는 어깨 근육... 오랜만에 어머니들은 따뜻한 돌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받은 후 한결 환해진 어머니들의 표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산타? 선물? 카드? 트리?

한사랑의집에서는 삼성생명 여의도지점 자원봉사자와 가족들이 모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예쁜 장신구와, 건강하게 치료 잘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에게 보내는 카드가 함께 걸렸습니다. 비록 치료 때문에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디보다도 충만한 우리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살림 장만했어요!**

신촌 한사랑의집이 많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의 치료 중 쉼터의 역할을 해낸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처럼 알뜰살뜰 사용해 주었지만,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라 많은 가전제품이 노후해졌



습니다. 세탁기는 덜컹덜컹 소리를 내고, 냉장고의 기능은 떨어지고... 때마침 2011년을 맞아 강남구청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노후된 여러 전자제품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용량이 커지고 소음이 적은 세탁기, 냉장냉동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냉장고를 맞이하면서 한사랑의 집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오늘은 내가 루돌프!**



크리스마스를 병실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깜짝이벤트! 행복한 크리스마스 추억만들기! 즐거운 사진촬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소 가득한 크리스마스이브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손님**



12월 24일, 대구쉼터에 멋진 산타들이 헌혈증 선물꾸러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헌사모'는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헌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아리입니다. 헌혈하는 날을 정기모임일로 정하고, 헌혈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린다는, '나눔'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만든, 멋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지원 결정  
환아

이식비	
1. KB국민은행 유동현결합조직성 원형소세포종양/삼성서울병원 2,000만원	심다정(만막모세포종/부산대학교병원) 70만원
2. 나향 임준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600만원	2. 외환은행나눔재단 이예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최순천남대학교병원) 100만원
3.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각 500만원 노경준(유양육종/삼성서울병원) 이승현(유양육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3 해피빈 노현용(골육종/경북대학교병원) 160만원 박소현(뇌종양/동아대학교의료원) 400만원
4. 이베이옥션 각 2,000만원 조창익(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병원) 박수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정주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4. AFC 이서준(상외세포종/삼성서울병원) 300만원
5. 우정사업본부 이은유(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300만원	5. 익명후원자 노현용(골육종/경북대학교병원) 440만원
6. 토탈소프트뱅크 정현경(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900만원	<b>치료비</b>
7. 한국증권금융(주) 김혜민(이적혈구생성빈혈/삼성서울병원) 2,000만원	1. 2010 `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신동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900만원 박용태(골수이형성증/이대목동병원) 7,383,970원
8. 2010 `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이승현(유양육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1,000만원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혜인(급성골수성유종/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800만원 황승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1,895,940원 오영환(황문근육종/국립암센터) 2,296,010원
9. 익명후원자 이은유(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960만원	3. 드림팩토리클럽(차카게 살자) 박솔(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300만원 허태경(연부조직육종/서울성모병원) 400만원 김성유(코인두의 악성신생물/삼성서울병원) 400만원 오영환(황문근육종/국립암센터) 5,703,990원
10. 이식비 기금 노경준(유양육종/삼성서울병원) 1,000만원	4. 메디포스트 조혜인(급성골수성유종/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905,730원
11. (주)효성,연양공장(지정기탁) 임준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6,854,000원	5. 배재열기금 각 100만원 허태경(연부조직육종/서울성모병원) 김성유(코인두의 악성신생물/삼성서울병원) 강희원(버킷림프종/국립암센터)
<b>재활치료비</b>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후원자 각 1,000만원 신아드합광철(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백병원)
	이혜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이승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7. 삼성SDS 신소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강희원(버킷림프종/국립암센터) 654,191원
	8.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조혜인(급성골수성유종/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500만원
	9.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아름(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5,837,180원
	10. 우정사업본부 각 300만원 조창익(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병원) 신동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허태경(연부조직육종/서울성모병원) 김성유(코인두의 악성신생물/삼성서울병원) 강희원(버킷림프종/국립암센터) 박철후(급성림프모구백혈병/인하대학교병원) 장건(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김용성(유양육종/국립암센터)
	11. 토탈소프트뱅크 조창익(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병원) 390만원 김용성(유양육종/국립암센터) 500만원 한아름(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200만원
	12. 한국OGK 황승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500만원
	13. 한국증권금융(주) 정현경(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2,000만원
	14. 한전KPS 제영민(황문근육종/국립암센터) 400만원
	15. 한정민기금 정건(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109,576원
	16. SBS 신소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396,832원

--	--	--	--

<p>17. (주)마이디어스(LG사이언, 지정기탁) 각 350만원 조경천(신경모세포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준혁(약성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p> <p>18. 익명후원자 임준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1,200만원</p>	<p><b>* 일시 간접치료비</b></p> <p>1. 강남구청 김대영(골육종/원지력병원) 1,037,200원</p> <p>2. 금호아시아나그룹 각 100만원 양동근(급성림프모구백혈병/전북대학교병원) 송승민(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김현새(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p> <p>3. 나향 조창익(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병원) 100만원</p> <p>4. (주)마이디어스(LG사이언, 지정기탁) 각 350만원 조경천(신경모세포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준혁(약성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p> <p>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각 100만원 박용대(골수이형성증/이대목동병원) 서동명(순직혈구빈혈/한양대학교병원)</p> <p>6. 비비큐(지정기탁) 유아영(신경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 420만원</p> <p>7. 세아제강(지정기탁) 조혜인(급성골수성유증/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0만원 박시후(신경모세포종/서울성모병원) 100만원</p> <p>8. 우정사업본부 장현경(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100만원</p> <p>9. 태진인터넷내셔널 이해성(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80만원</p> <p>10. (주)호수의나라 수우미 권주혁(만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100만원</p> <p>11. KRA 각 100만원 문미진(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문유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원주기독병원) 백건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김도호(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p>	<p>12. 익명후원자 이해성(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20만원</p> <p>13. 일시간접치료비 기금 각 100만원 이은유(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김민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백병원)</p>	
<p><b>간접치료비</b></p>		<p><b>가발지원</b></p>	
<p><b>*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b></p> <p><b>기업은행노동조합</b> 매월 15만원 김상완(급성림프모구백혈병/건국대학교병원) 김세민(약성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 심민찬(급성림프모구백혈병/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장윤진(상피육종/서울대학교병원) 한유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p> <p><b>디시인사이드 유아인캐릭터</b> 매월 20만원 우예은(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p> <p><b>서선원 개인후원자</b> 매월 20만원 김민지(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p> <p><b>유비쿼스</b> 매월 20만원 구민술(비호지킨림프종/서울성모병원) 백상홍(골육종/부산대학교병원)</p> <p><b>태진인터넷내셔널</b> 매월 20만원 홍준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건국대학교병원)</p> <p><b>한국남동발전</b> 매월 20만원 이승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p> <p><b>(주)효성 연안공장</b> 매월 15만원 임준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p>		<p>강 건(골육종/서울아산병원) 구도현(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 김기범(호지킨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김다정(유잉육종/서울대학교병원) 김영현(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김예은(무과립세포종/서울성모병원) 김유일(뇌종양/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황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박나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방지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서민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수빈(연부조직육종/서울대학교병원) 송진희(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유태현(뇌종양/서울아산병원) 육예진(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이명현(악성뇌종양/영남대병원) 이윤경(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장성화(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장성중(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진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조현겸(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조현수(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 차지현(육종/서울대학교병원) 최가현(유잉육종/서울대학교병원)</p>	

# 후원자 소식

소아암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기후원

김미선 강서운 강성만 강은주 강외주 강진연 강창선 강태호 경도윤 경보경 고훈기 구현아 권나현 길현주 김기영 김기정 김길남 김나경  
김나현 김대환 김동명 김래원 김문정 김상동 김상원 김상일 김선미 김선영 김성록 김성연 김세한 김소민 김수권 김수미 김수빈 김수진  
김수현 김순래 김승미 김신영 김아영 김연희 김영주 김영진 김예성 김예찬 김우철 김윤선 김윤정 김의석 김일도 김일우 김재원 김정애  
김정열 김정현 김좌중 김지선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박강초 박근혜 박남규 박대석 박미란 박병민 박상엽 박성희 박아란 박연희  
남궁선 노경선 노명선 노시웅 도주섭 류해숙 문영현 문정윤 문강호 박근혜 박남규 박대석 박미란 박병민 박상엽 박성희 박아란 박연희  
박영학 박은아 박정민 박지예 박차경 박태준 박하늘 박현숙 박현호 박형근 박혜련 방옥현 서미정 서지윤 서해미 손규호 손돌이 손은정  
손정연 손주애 손현수 손화영 송갑선 송용구 신경숙 신미현 신선옥 신영은 심윤기 심재규 심현주 안문희 안정아 안호식 양민우 오영필  
오은지 오준태 우경희 원상연 유상운 유신재 유월재 유정문 유지현 윤문하 윤석주 윤수형 윤종호 윤지미 이경진 이근우 이기현 이명진  
이명희 이민성 이부용 이상원 이선희 이성분 이소영 이승연 이아름 이영민 이영석 이영민 이예분 이우석 이윤찬 이은진 이은호  
이익중 이인지 이일녀 이정희 이지은 이지혜 이진경 이창훈 이해정 이현님 이혜영 이희덕 이희연 이희원 이희정 인혜진 임경숙  
임근애 임미경 임상준 임소은 임영심 임창균 임재현 임초예 장광필 장준혁 장현구 정경수 정규희 정근우 정금수 정복희 정성희 정슬기  
정승수 정승희 정유현 정재영 정혜영 조계준 조규남 조민희 조원의 조호경 조효숙 조희진 주성미 주형순 지명희 천현영 최경영 최순자  
최승묵 최우인 최은숙 최정욱 최지선 최지효 최필규 최원희 최혜수 태윤정 하경미 하다희 한나영 한동미 한미령 허재영 허재원 홍세봉  
홍성만 홍영화 황수찬 황유정 황진경 주식회사문씨티마음 사랑의교회 대학7부

## 일시후원

강동혁 강시목 객창호 김경석 김기조 김보람 김상철 김성수 김성하 김양훈 김정훈 김형숙 김형준 김혜진 민예리 박경아 박민선  
박서율 박순영 손성근 손정우 심재진 어린이 오연순 우승원 유병성 유희기 윤소연 이경연 이도연 이종호 이준호 이지영 이현정 이형명  
임동재 임병욱 임수근 임은희 임희웅 장미소 장병용 장성호 장진식 장하림 장희재 정대훈 정순영 정재운 조윤선 조은희 채주아 최영준  
최홍림 하남규 황성열 황윤희 (주)석봉토스트 1004 김민찬김이경 덕소3-8 두원H-PJT 레드원사운드 미래 백운착하게살  
분동삼성래미안입주자대표회의 임마누엘 전미혜(예안교회) 익명기부 청룡동새마을금고 피셋(주) 행운렌트카

## 물품

강나영 과일 김영훈 치료 김지호 도서 전남만수무강 한복 목탁소리 도서 삼성생명여의도지점 프로그램비 삼성SDS 상품권  
신은지 굴 사이니온유팜클럽 '징뽀' 쌀 정수현 음료수 정행임 생필품 제이솔루션 쌀 (주)리바트 프로그램비 한영창 음료수  
(주)호성연양공장 도서 푸드바스켓치킨스타 식품 (주)호수의나라수미 전기압력밥솥 물티슈 진성고등학교 3학년 10반 상품권  
하동건 과일 태진인터내셔널 가방

## 현열증(매)

김성한(10) 김유리(11) 김진우(2) 김태용(107) 박기식(10) 서혜빈(366) 송현진(3) 심종철(50) 우성용(11) 이근희(6) 이종선(30) 장미소(30)  
한상수(50) 현사모(41) 익명(156) 익명(3) 중부도시가스(42) 창조프로덕션(200) 축산물품질평가원(200) 파파프로덕션(1,800) 벼룩시장(495)  
푸드바스켓치킨스타(87) 한국산업인력공단강원지사(5) 2010MBC어린이에게세생명을(1,175) 디자인사이드유아인갤러리(74) 경민대학(880)  
공무원연금공단(120) 드림팩토리클럽(28) 보령중보재단(119)

##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체국 : 012989-01-003327
농협 : 029-01-176943	우리은행 : 112-04-112571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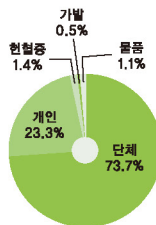
# 2010년 사업보고

## 수입

(단위: 원)

구분	금액
재산 수입	29,598,914
후원금 수입	2,821,106,092
과년도 수입	7,284,930
보조금 수입	407,890
기타	4,141,927
합계	2,862,539,753

수입/후원금 기부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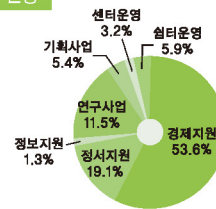


##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사업비	2,106,726,228
사무비	582,068,072
재산조성비(비품)	7,052,950
법인세	4,007,780
기타(예수금)	387,570
합계	2,700,242,600

지출/사업비 현황



###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사업명	사업실적	금액	구분	사업명	사업실적	금액	
경제적 지원	이식비지원	39명	384,381,295	정보 지원	소아암교육	13회/362명	309,840	
	치료비지원	123건	442,833,058		보호자교육	-	-	649,150
	재활치료비지원	28명	55,152,197		미니도서관	-	-	1,403,360
	일시간접치료비지원	78명	96,934,040		소아암교실	방문수 4,235건	1,233,720	
	정기간접치료비지원	105명	123,610,360	연구사업	연구지원	3건	243,401,500	
	현찰증지원	6,700매	27,043,630	기획 사업	후원자관리	16,668명	62,563,456	
정서적 지원	학습지원	42명	24,000,000		유관단체관리	-	-	289,450
	가발지원	63명	42,441,210		자원봉사자관리	-	-	814,890
	프로그램비	-	12,459,910		홍보사업(홈페이지, 소식지 발간 등)	-	-	28,563,060
	희망메이커	2명	1,633,900		교육훈련비	-	-	6,500,320
	가족지원	2,975명	208,453,020		후원개발	-	-	15,279,907
	원치자 장학금지원	10명	30,442,800		쉼터운영	제수수료	5개소/17,436명	4,866,240
	원치자 자기성장프로젝트	10명	4,622,790			제세공과		32,574,619
	치료종결자지원	23개병원 682명	19,934,500	장비유지비		86,542,758		
	원치자 네트워크	-	203,700	센터운영	제수수료	1개소/921명	57,552,000	
	미술치료, 놀이치료	313명	57,713,036		제세공과		4,744,592	
정보지원	교육자료지원	26종/8,660부 배부	24,258,120		장비유지비		4,319,800	
사업비 총계				2,106,726,228				

###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임직원 후원금 전달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임직원은 12월 7일, 임직원의 행사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에 동참한 한국아이엠에스헬스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동국제약 사랑의 송년음악회에서 후원금 전달



동국제약은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랑의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후원금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나눔에 동참한 동국제약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LG사이언, 트위터를 통한 나눔

LG사이언은 트위터를 통해 고객이 함께 소아암 어린이에게 응원글을 남기고, 응원댓글 하나마다 일정액을 LG사이언에서 적립하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후원하였습니다. 고객과 함께 나눔에 참여한 LG사이언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나눔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크리스마스카드

지난 크리스마스 개인후원자 한 분이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들어 주변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이 수익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후원자분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 헌혈증 전달

- 2010년, 파파프로덕션은 헌혈증을 가져오는 관객분들께 티켓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통해 총 2,901매의 헌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경민대학 총학생회와 학회장연합회에서는 2009년에 이어 교내 헌혈증 기증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 880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뜻 깊은 일에 동참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또하나의 방법

- 유아인의 팬 모임인 **디자이너사이드 유아인갤러리**에서 팬들이 모금한 후원금과 헌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샤이니 온유 팬사이트인 **징쁘**에서는 온유의 생일을 맞아 220kg(20kg 11포대)의 쌀을 지역별 한사랑의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후원금 전달



완구기업인 토이저러스를 국내에서 운영하며 자사 브랜드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모아 2007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롯데마트가 2010년에도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토이저러스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태진인터내셔널 치료비 전달

2005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에 참여한 태진인터내셔널(루이까포즈)이 2010년에도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항상 더 많은 나눔의 방법을 고민하는 태진인터내셔널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비비큐&비스트 자선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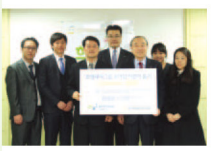
1월 26일, 비비큐는 비스트의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미니 콘서트'에서 비스트의 의상 경매를 통한 수익금과 비비큐 대표이사의 기부금을 모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눔에 동참한 비비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증권금융(주) 나눔협약식**



12월 28일, 희망미소 소아암센터에서 한국증권금융의 나눔 협약식과 함께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임직원과 기업이 함께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모금한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가 조혈모세포이식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한 한국증권금융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보령계약그룹보령중보재단 노랑Reborn+ 캠페인 참여**



보령계약그룹보령중보재단은 2월 15일,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노랑Reborn+' 캠페인에 참여하여 후원금과 현혈증을 전달하였습니다. 보령계약그룹보령중보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주)호수의나라 수오미 후원금, 후원물품 전달**



(주)호수의나라 수오미는 임직원과 회사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후원금과 함께 물티슈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나눔에 동참한 호수의나라 수오미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11 우정사업본부 공익사업 선정**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우체국 한사랑의 집 운영 지원 및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을 2011년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으로 선정, 총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월 24일 열린 우체국예금보험 공익사업 Kick off 행사에서는 업무협약 조인식과 함께 전국 우체국을 통해 모아진 현혈증 전달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유비쿼스 후원금 전달**



(주)유비쿼스는 임직원이 함께 모은 후원금을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눔에 동참해 준 유비쿼스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임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모은 후원금과 함께 현혈증 200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수 이승환 '차카게살자' 공연**



2001년부터 '차카게살자' 공연을 펼쳐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고 있는 이승환 홍보대사가 만 10년을 채우고 2월 26일, '차카게살자' Season2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하는 이승환 홍보대사와 참여해 준 출연진 여러분, 드림팩토리클럽, 마스터플랜, 그리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 한국OGK에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아미스타사랑나눔동호회는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비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크라이스I&C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의 1%를 적립하여 분기별로 후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소아암 바로알기 캠페인 - NOW, WE SHOULD KNOW



이 동영상은 주성훈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내레이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이승환)

###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부모의 소득이나 사는 지역,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내 자녀, 동생, 친척, 친구, 그 누구에게든 이유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확률병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가야 하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캠페인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 [www.youtube.com/gokclf](http://www.youtube.com/gokclf)

유튜브 채널에서 소아암 어린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14 인설빌딩 4층 전화 / (02) 766-7671(대) 팩스 / (02) 766-7674

☎ [www.kclf.org](http://www.kclf.org) ✉ [cancer@kclf.org](mailto:cancer@kclf.org)